

“中企 ‘52시간제’ 땀 인건비 +3조, 월급 -32만원”

“직원들 투잡 몰리고 추가비용 눈덩이”
“일 더 안하면 가족생계 어려워질 것”
‘52시간제’ 노사 양측 반발에 누더기 신세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처분을 유예한 가운데, 주52시간 도입 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수십만원 줄어들고, 회사의 인건비는 수조원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노민석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토론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52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3조3000억원에 달하며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는 월평균 33만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노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 중소기업들은 기존의 평균 근로시간을 채우기 위해 총 12만 3000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선 총 5조9771억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여기서 주52시간 초과근로자의 연간 총임금감소액 2조6436억원을

빼면 결국 3조3000억원이 기업들의 추가 부담액이라는 설명이다.

특근과 야근이 줄어들며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월 급여는 평균 33만 4000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직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급 감소 폭은 무려 ‘46만6000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분을 다 합치면 연 2조6436억원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은 3조3335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신규 고용 12만3000명의 연 임금 증가액(5조9771억원)에서 기존 근로자의 연 임금감소액(2조6436억원)을 뺀 값이다.

이날 대구의 한 중소기업 부장은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직원 월급이 월 30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줄어든다. 가장이 이 정도 월급으로 아파트 관리비 내고, 자녀 사교육비 내면 뭐가 남겠느냐. 퇴근하고 대리기사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투잡을 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마트 '2019 희망 김장 나눔'... 소외계층·독거노인에게 4000포기 전달

이마트 임직원 봉사단 및 피코크 봉사단, 일반 봉사자 등 총 120여명의 봉사자들이 11월18일 오전 성동구청 앞마당에서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2019 희망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마트는 이날 행사장에서 담근 김치 2000포기는 지역 소외계층 400세대에, 이마트 김장김치 완제품 2000포기는 독거노인 1000세대에 전달했다. 사진=이마트

현재 주52시간 보완 제도로 지목되고 있는 탄력근무제 강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탄력근로제는 여름철 빙과 업체처럼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릴 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없을 때 근무 시간을 줄여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법안은 이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2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 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타협을 봤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유는 여야 국회 간사단이 집중 논의 중이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를 고수했고, 야당은 최대 1년에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추가한 상태다. 반면, 여당은 ILO(국제노동기구)협약

국회 기준 등 노동 현안 법안의 일괄 처리해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는 “주 52시간 처벌 유예 방침은 사실 상 주 52시간제의 실패를 인정한 백기 투항”이라며 “노동조합 눈치 보기, 달래기에만 급급해 또다시 땀질식 처방에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영업익, 현대차 빼고 10대 그룹 모두 추락

3분기 전년 대비 매출 7.15%·순이익 62.5% 감소
현대차 영업익 1조... 지난해 최악 실적 탓에 ‘금등’

현대자동차그룹을 제외한 10대 그룹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기업집단 전문 데이터서비스 ‘인포빅스’가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 계열사 90곳의 3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총 6조162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5조2862억 원)보다 75.63% 감소했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률은 3.75%로 작년(14.28%)보다 10% 넘게 하락했다. 1~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도 5.63%로, 13.92%를 기록한 지난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그룹별로 보면 영업이익이 증가한 곳은 현대차그룹 뿐이었다. 1~3분기 누적 영

업이익도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2곳만 증가했다.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은 1조232억원으로 지난해 1739억원 보다 476.4% 급증했다. 주력 기업 현대차가 지난해 3분기 엔진 리콜, 엔진 진동 감지 시스템(KSDS) 도입 등 비용 부담으로 적자를 기록했다가 올해는 흑자 전환한 데 따른 결과다.

삼성그룹은 영업이익 3조56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4조6900억원)보다 79.19% 감소했다. SK그룹의 영업이익도 87.41% 줄었다. LG디스플레이는 액정표시장치(LCD) TV 패널 가격 급락에 직격탄을 맞아 적자로 돌아섰고, 그룹 전체 영업이익은 133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동기 1조5458억원 보다

99.14% 줄어든 수치이며, 10대 그룹에서 가장 큰 감소 수치다. 한진그룹은 항공업계의 비용 부담에 영업이익이 69.62% 급감, 대한항공 영업이익 69.99% 감소, 진에어 적자 전환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한화그룹 -49.39%, 현대중공업그룹 -37.58%, 롯데그룹 -34.99% 등을 기록했다.

10대 그룹의 전체 상장사의 매출액은 164조358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77조 151억원 보다 7.15% 감소했다. 매출액 감소 폭은 현대중공업그룹(-56.53%)이 가장 컸고, SK그룹(-25.68%)과 한화그룹(-13.29%), GS그룹(-10.46%)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또 10대 그룹 상장사의 3분기 전체 순이익은 7조246억원으로 작년(18조7337억원)보다 62.50% 감소했다. 인포빅스는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을 실적부진 이유로 꼽았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日, 액체불화수소 첫 수출허가

일본 정부가 액체불화수소(이하 불산액) 수출을 허가했다. 지난 7월 대한민국 수출규제 발표 후 약 4개월만이다.

1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의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틸라케미파의 한국 불산액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올해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이며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수출 건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수출을 허가한 배경은 일본이 WTO제소에 따른 양자협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은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11조 1항에는 WTO 회원국은 수출에 대해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WTO 양자협약은 19일이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한국의 제소에 따라 진행 중인 WTO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국기업 위기감에 따른 수출허가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에 한국으로 수출하게 된 스틸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업체지만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억 원보다 88%나 급감했다.

국내 기업들은 일본의 다양한 변수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수차례 말을 바꾼 만큼 각종 변수에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한국 경제성장률
내년 2.1% 그칠 것
반도체·전자·화학
리스크에 가장 취약”

무디스 전망

무디스는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0년 한국 신용전망 컨퍼런스’를 열고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무디스가 9월에 냈던 전망치와 같은 수치로 최근 홍콩시 경제부총리가 예측한 2.2~2.3% 보다 낮다.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국가신용 담당 애널리스트는 컨퍼런스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홍콩사태 등으로 2013년 이래 처음으로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대다수 국가에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G20 국가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2.6%(전망치)로 떨어졌다.

무디스는 “지속적인 글로벌 무역 갈등은 내년 한국 기업의 실적을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도체·전자 산업과 화학 산업이 리스크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려되는 관세 부과나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은 한국 기업의 경제이익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한국의 고령화와 정체된 산업구조는 물론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도 구조적 위험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무디스는 지난 18일 유리와 흙씨씨, 상계 사업 등으로 회사를 분할한 KCC에 대한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1로 한단계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높은 재정건정성으로 외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Aa2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종현 기자 ajh@meconomynews.com

Inside

주 52시간 반발	▶2-3면
화생 中企 금융 ‘숨통’	▶10면
용성중 안전성 논란	▶18면

누구나 칸 라이언즈 무대에 설 수 있다.

CANNES LIONS 2020

22 - 26 June 2020

2020 칸 라이언즈 연사 모집안내

자격: 독보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접수: canneslions.com 홈페이지 (2019년 11월 중순까지)
문의: 칸 라이언즈 한국 사무국
(webmaster@canneslions.co.kr, 02-757-1830)